



김 선 동
 (S-Oil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친애하는 S-Oil 임직원 여러분!

21세기가 시작되는 서기 2001년, 신사년(辛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우리 회사가 S-Oil 주식회사로 새롭게 출범한 원년(元年)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회사의 두 합작 파트너 중의 하나였던 쌍용양회가 모든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우리 회사는 쌍용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의 새로운 출범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대적 감각에 맞는 새 사명을 도입하고 지난 3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S-Oil로 새롭게 출범한 지난 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경제는 계속되는 구조조정 가운데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아직 누구도 쉽게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활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좋지 않은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유산업에서도 각 회사의 수익성이나 소비자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무차별한 밀어내기식 판매로 극심한 경쟁이 촉발되었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로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4분기 들어서는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엄청난 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여느 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회사는 이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원가에 연동하여 제품가격을 결정하던 과거의 가격 산정방식을 수입제품과 불가피한 경쟁을 전제로 한 가격산정 체계로 바꾸고 이를 국내의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이는 제품가격과 관련한 저간의 오랜 불신을 해소함은 물론 그 동안 가격은 높지 정해 놓고 실제로는 덤핑이 성행하던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생산 시설들의 효율적 운영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우리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출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및 수출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생산물량의 원활한 판매는 물론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비축기지를 완공함으로써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강화함은 물론 계절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점도 지난해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의 환율을 적용한 회계상의 결산을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환차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수년동안 보여왔던 높은 수준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율에 의한 이익 감소는 실질적인 것이기보다는 회계 기술상의 문제이고 또한 앞으로의 환율의 변화나 또는 그 환율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됨으로써 회사의 수익이나 현금흐름 등에는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타의 경쟁사들에 비해 얼마나 더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 최고이자 세계적 수준의 고부가가치 시설인 '벙커-C 크랙킹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해에도 월등한 부가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동안에도 꾸준히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최근 들어 국내 경제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IMF시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정도에 불과한 우리 경제에 또 한번의 위기가 닥친다면, 그 충격은 2~3년 전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또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일치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 의식을 갖고 곧 닥칠지도 모르는 더 큰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긴축경영의 기초를 계속 유지하면서, 과거에 비해 더욱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기업의 최대 사명은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며, 특히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 회사로서는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환경기준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회사의 생산시설을 한층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신규 프로젝트도 금년 중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환태평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문 정유회사"를 추구하는 회사의 비전(Vision) 달성을 향해 착실히 전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복수 상표 표시제'를 비롯하여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유통구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경주하였던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 회사의 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나아가 회사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주의 권익보호를 회사 경영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로 삼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S-Oil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뉴 밀레니엄(New Millenium) 경영방침'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사는 그 동안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고 모든 핵심적인 사안들을 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수준에 손색없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경쟁력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미래의 비전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한편 미래의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새 시대를 향한 회사의 이와 같은 노력에 발맞춰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회사의 비전 달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비록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해 야기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회사의 회계적인 경영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이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탁월한 경영성과를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금년 한해 동안에도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한층 분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S-Oil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